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하여” 몽골서 장수 농특산물 홍보

무주군, 제28회 노인의 날 경로행사 개최... 무주군수 표창·공연 등 진행

제28회 무주군 노인의 날 경로행사가 지난 8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무주군이 주최하고 (사)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노년의 자긍심을 키우고 지역 사회와 공경(恭敬)의 뜻을 새긴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 그리고 지역 내 기관사회단체장과 (사)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회원 등 2천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안성면 뷰티플과워터의 “고고장구”와 무주읍 하리경로당 댄스팀의 “하리하리 쓰리쓰리”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축하 무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사)대한노인회 김만중 부회장이 낭독한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노력하고 △효친경로의 윤리관과 전통적 가족제도가 유지·발전 되도록 힘을 것, △청소년을 선도하고 젊은 세대에 봉사하며 사회정의 구현에 앞장선다는 “노인강령”의 내용을 새기며 뜻을 모았다.

(사)대한노인회 이광부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어른으로서 고향 무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후손들의 삶에 보탬이 돼야 한다”라며 “행복한 노년은 스스로 기쁘고 만들어 가는



제28회 무주군 노인의 날 경로행사가 지난 8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것임을 잊지 말자”라고 강조했다.

무주읍 송택연 씨와 무풍면 김재수 씨, 설천면 서병인 씨, 최육목 씨, 적상면 김갑순 씨, 적상면 김창남 씨, 안성면 송정심 씨, 부남면 김홍섭 씨가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실현에 앞장서며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되는 모범노인에게 수여하는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다.

무풍면 최동환 씨와 안성면 송의숙 씨는 지역 사회 발전과 지역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무주군의회 표창을 수상했으며 설천면 김옥순 씨와 안성면 이보희 씨, 부남면 배종선 씨는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커 (사)대한노인회무주군지회에

서 주는 상을 받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무주군 발전과 변화의 주역”이라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자존감 넘치는 노년을 위한 일자리와 돌봄, 의료, 여가 등 맞춤형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석진숙, 참여 회원 수 24명)는 점심 배식을, 새마을회 무주군지회(회장 이순희, 참여 회원 수 5명)에서는 커피와 전통차 등 “차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으며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건강 검진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노인일자리 참여자 친목·화합 도모

진안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문화한마당 행사 열어

진안시니어클럽(대표 김일술)은 8일 진안문화체육관에서 노인일자리 문화한마당 행사를 열어 700여명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문화한마당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문화한마당 행사는 2019년 시니어클럽 개관 이후 처음 개최된 것으로 참여자들에게 문화활동의 기회 제공과 참여자 간 친목과 화합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중경굿, 라인댄스 등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축사, 기관홍보 영상, 축하공연과 더불어 어르신들의 그림 전시 등의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됐다.

전춘성 군수는 “우리 지역을 위해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오늘 행사를 통해 즐거운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며 “진안군은 앞으로도 양질의 노인일자리 서비스 제공과 어르신들의 건강하



고 활력있는 노후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의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현재 1,100여명의 어르신과 함께 환경정화활동, 공공시설 및 취약시설 업무지원, 노인생산물 생산·판매 등을 추진하며 활기찬 노년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여성친화일촌기업 간담회

장수군은 지난 8일 장수 여성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여성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여성친화 일촌기업 간담회를 실시했다.

관내 여성친화 일촌기업 대표 및 인사담당자, 장수군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 기업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그간 주요 사업실적 안내 및 취업실태 모니터링·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여성친화 일촌기업에 대한 원예테라피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기업체간 유대관계를 갖는 시간도 가졌다.

이현원 주민자치과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취업 인프라 구축과 기업체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활성화에 노력하며,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과 문화 조성에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친화 일촌기업은 새일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체 또는 채용을 약정한 기업체로 장수군에는 관내 1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건국절 행사 참여

지난 2일,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주재하에 몽골 울란바토르 호텔에서 열린 건국절 축하 행사 만찬에 장수군 대표 농특산물인 한우, 사과, 오미자청, 사인머스켓이 선보였다.

장수군과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은 건국절 리셉션 행사 개최를 위한 MOU 체결을 함으로써 장수군 농특산물 홍보에 적극 상호 협력토록 했다.

이날 행사는 최진원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몽골 주요인사 장관, 기업인, 타국 대사관 등 400여명이 모여 장수군 대표 농특산물인 사과, 사인머스켓, 오미자청과 장수한우를 이용한 스테이크, 불고기 등을 식사로 함께 즐기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더불어, 몽골 울란바토르 현지 마켓(AT 안테나샵, 사물마켓 등에서 한우, 사과, 사인머스켓 할인 판매 및 시식회를 운영하며 장수군 농산물과 장



수군 농특산물 대표브랜드 ‘장수가꿈’을 같이 홍보했다. 프리미엄 시장 내 ‘장수’라는 네이밍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군과 몽골과의 상호 협력 관계가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원하고 농특산물 수출에 단기성이 아닌 연속성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수요조사

진안군은 지난 8일 내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을 위한 사전 수요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9월부터 오는 14일까지 관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희망농가 및 관내 결혼이민자 4촌 이내 가족 초청과 관련해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도 MOU체결 및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도입 규모를 결정하고, 현지 최종 면접을 통해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 및 농가배치를 통해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진안군은 우수 근로자 선발 및 도입을 위해 외국 지자체와 협약을 직접 체결하며 현지 출장을 통해 최종 면접을 실시하고, 성실 근로자에 대해

서는 재입국을 추진하고 있어 관내 농가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협약 체결국인 필리핀 이사벨라주(2022.3.체결), 퀴리노주(2023.2.체결), 마갈레스시(2023.2.체결)에서 273명, 관내 결혼이민자 4촌 이내 가족 초청으로 282명이 입국해 농업근로에 임하고 있어 농촌 일손 부족 현상에 기여를 했다는 평이다.

전춘성 군수는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농산물 생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우수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농가에서도 따뜻함으로 근로자들을 대해 주셔서 다시 찾고 싶은 진안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접수

장수군은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와 근로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의 신청을 이날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농번기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자체에서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도입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수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가족 및

4촌 이내 친척초청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농가직접고용으로 24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치되어 농가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는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다. 계절근로자로 근무 시 발급되는 비자는 E-8비자(5개월)이며,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 테마 나들이 진행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홍교)은 지난 8일 이용자 51명과 직원들과 함께 경상남도 사천시 일원로 나들이를 떠났다.

‘모두 함께 떠나는 산과 바다, 우주여행’이라는 테마로 진행된 이번 나들이는 신체적, 경제적 조건으로 활동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 이용자에게 여행을 통해 기본 전환과 이용자 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여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자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사천시의 항공우주 박물관과 우주과학관에서 우주를 향한 무한한 꿈과 상상력을 만드는 문화공간 관람과 21세기 첨단 항공우주산업의 기술과 비전을 알아보고, 이리마루 아쿠아리움에서 공룡의 후예인 수빌과 초대형 하마 등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나들이에 참여한 참가자는 “너무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으며 오랜만에 보는 바다에 힐링이 되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홍교 관장은 “테마나들이 사업으로 나들이의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시민대학 진안캠퍼스 수강생 우석대 현장 수업

진안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북시민대학 프로그램 “나와 너, 우리의 관계성 회복” 수강생 20여명은 지난 7일 열린 우석대학교 전주캠퍼스에서 현장 수업에 참여했다.

수업은 우석대학교 김장수 교수 지도하에 심리운동·상담학과 이론수업이 진행됐으며 실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강의실에서 집단을 활용해 신체적인 움직임 등을 통해 심리운동교육과 움직임 매개로 치료를 하는 심리운동치료 수업에 경험했다.

수업 이후에는 우석대학교 대운동장에서 다양한 학과 홍보 및 체험존 부스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